

詩誌

종 소 리

제 107 호

2026 년 7 월 여름호

시지

종 소 리

107 호



2026 년 여름호

(107 호)

차 례

첫사랑	강 명 숙 (4)
행렬	서 정 인 (6)
푸른 들 푸른 꿈	채 동 규 (7)
올테면 오라지 !	허 옥 녀 (10)
슬픈 6.15	김 윤 순 (12)

조 수 오 사 수 리 / 조 기 보 하 가 옥 / 리 흥 수

작은 손	배 가 나 (14)
《안녕하세요》	최 령 화 (16)
첫 교단에서	류 혜 령 (18)
고향	채 덕 호 (20)
꼬리곰탕	김 애 미 (21)
《찰각》	리 일 렬 (22)

《전하고싶어》	김 명 혜 (24)
지수야	심 달 야 (26)
친구가 생겼다	진 승 원 (28)
요즈음	김 성 순 (30)
아십니까	리 방 세 (32)

조 수 오 사 수 문 / 조 기 보 하 가 자 / 문 장 수

치마저고리	서 정 인 (33)
나비	양 금 녀 (34)
청춘이여 격류하라	심 복 실 (36)
예 !	리 방 세 (39)
우리 학교를 찾아온 가족	김 성 철 (40)
동맥	정 화 수 (42)
후기	(44)

첫사랑

강 명 숙

언제부터냐 내게 물어보는데
어려서 그런지 기억에 없고
첫인상이 어땠냐 물음에도
낯설지 않았다는 흔한 답밖에는

돌이켜보면 자라는 동안
언제나 함께 있어
한방울 물감이 물에 스미듯
서서히 번져온 그대의 세계

알수록 더 알고싶어
천진스레 다가간 어릴적
알다가도 모르는 네 모습에
커서는 애먹은 일 헤아릴수 없구나

그러나 좋은 날 어려운 날
그 어느때나 각별히 간직된
아 이런게 사랑이라면

나의 첫사랑은 《우리 말》

왜 좋은지 물어보거든
오늘의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
《우리》의 자취가 어려있기때문

다른 색을 튕겨내는 이 땅에서
동포들 뜻을 모아 지켜온것
기적처럼 나에게도 다가와
조선의 마음 키워준 고마운것

새겨온 세월에 고개 숙이며
미지의 앞날에 설렘을 안고
그대 향한 이 사랑
내 삶과 더불어 이어가리라

행 렬

서 정 인

고사리가 고사리를
꼭 잡고서
행렬이 지나간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 차를 세워
기다리면서는

마음속에서
말을 건네고
손을 흔들고
웃음을 보내게 되는

이 사회에서
으뜸으로 호소력이 높은
평화주장의 《시위》
보육원의 행렬

푸른 들 푸른 꿈

채 동 규

논두렁 콩포기 그늘속의 개구리 한마리
김매는기계소리에 후들쩍 놀라
따가운 논물에 침병 뛰어들더니
대번에 네다리 뻗으며 허우적대누나
땡볕은 지글지글 쏟아져내리라지
이 배미 논김 한것새에 다 맬테다

돌피랑 잡풀을 말끔히 잡아버리면
시원스레 우적우적 아지치는 벼포기들
이 무더위에 수고 많다는듯
장판지에 감겨들며 푸른 잎새 스적이리
논머리에 이동식속보관 줄지어 세운
선동원 옥이도 내 일숨씨에 연방 감탄할거야

누가 알랴 옥이와 내가
남모르게 다수확경쟁건 사이인줄
모내기준비로 바쁘던 그 봄날
달구경 함께 하재도 본체 안하더니

한여름에 접어들며 그 심장도 뜨거워졌는지
나만 보면 생글생글 들쭉처럼 웃거던

옥이의 정어린 손길이 스쳐간 벼포기들은
왜서인지 나도 한번 더 쓰다듬고싶은데
들일마친 저녁이면 달빛폴린 시내가에
까만 장화 빨간 장화 나란히 벗어놓고
과학농사이야기 도란도란 나누고싶은데
《가을에 가서 보자요》이 한마디뿐이니
이거야 어디 속이 끓어 건딜수 있나

화독처럼 화끈화끈 달아오른 들판에
한줄기바람 건듯 불어스치니
우리 흘린 땀방울 자양으로 빨며
우리 품은 푸른 꿈에 한껏 물들어
장하게 자란 곡식들이 췌췌 소리치는데야
어찌 이 가슴 설레이지 않으랴

땀부기는 땀북땀북 개구리는 개굴개굴
설레여라 푸르른 여름아
설레여라 고향땅 가꿔가는 기쁨아

이제 인츰 벼꽃이 피고 가을이 올터이니

옥이와 금물결에 넘실 떠실려
나누고픈 이야기 그 얼마나 많으랴
이 해의 첫해농사부터
옹골찬 수확거둔 보람을 안고
처녀의 귀뿌리에 대고 난 속삭일테야
들끝에 그림처럼 펼쳐지는 새 문화주택에
우리도 보란듯이 새살림 펼치자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실농군되여
그립던 평양길에도 함께 오르자고—
두고보라지 이 꿈 꼭 이루고야마는걸

저기 보아라 푸른빛 어우러진 들끝에서
옥이가 날 향해 정차게 손짓는걸
땡별은 지글지글 내리쬐여도
푸른 들 푸른 꿈은 더더욱 왕성해가네
풍요한 가을향해 더 좋은 래일향해…

(조선거주)

올테면 오라지 !

허 옥 녀

누가 77 살을 희수(喜壽)라 불렀니?
뭣이 기뻐서
뭣이 복이라고

운수좋은 수자라 불러온 7 자가
한개뿐더러 두개나 붙어있는데
나한텐 택도 없어 엉망이야

77 이 되니 한시간을 서있지 못해
10 여년동안 빠짐없이 장만해온
손자들 점심도 만들지 못해

눈도 귀도 자꾸만 멀어지고
입퇴원 거둬하는 한심한 신세
기쁜 일이라곤 하나도 없잖아

하지만 친구야 난 날려보낼거야
올테면 오라지 그까짓것

누구 좋으라고 물려서겠니

아픔을 이기는건 웃음밖에 없잖아
아직은 해야 할 일 태산같은데
팔자타령하면서 울고만 있겠니

더 굳센 마음 먹어야지
아무렴 그렇고말고 이겨내야지
손자들에게 좋은 세상 넘길 때까지 !

슬픈 6.15

김 윤 순

할머니의 눈물을 기억한다
가족 축하모임에서
《기쁜 날에 왜 이러냐》 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주름많은 손등을 기억한다

《느그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순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열흘쯤 뒤였을가
조국방문 하게 된 손녀를 뺨스정류소앞에 불러내시여
《삼촌들한테 아껴써야 한다 전해라
당분간 할머니가 못 가니까...》
하며 쥐여주신 얇은 돈봉투를 기억한다

《순이, 이걸 니 용돈으로 쓰고...》
하곤 보다 얇은 봉투를 따로 내미신 할머니
-할머니, 나도 일한다고

어데 부자라고 이걸 내게 줘…
하고 어른행세하는 손녀를
토닥토닥 다독여주신 할머니 손을 기억한다

바다건너 삼촌들과 사촌형제들
일본소식에 눈물 흘리고
《누이, 우리도 언제고
할아버지 고향에 가볼 날이 오겠죠?》
물어보던 사촌동생 눈망울도 기억한다

해마다 6.15 가 올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
못 잊는 추억들

작은 손

배 가 나

《량심》

교실앞 게시판에 써붙인

두 글자

어린 학생들은

그 뜻을 알거나 할가

입에 익지 않은 말을

소리내여 읽는 모습에

그저 멋을 부리는거구나 하고

웃으며 바라보았었다

어느날 아픈 동무를 찾아

저마다 말없이

보건실로 걸음을 옮기던 그들

시키는이없이도

말보다 먼저

마음을 내미는 모습이였다

량심을 가르치려던 나는
정작 가장 소박한 량심을
잊고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흐려진 이 마음은
그 자그마한 소행에 씻기듯

그렇다
량심은 거창한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앞에서 멈추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것

오늘도 교실에서는
동무를 향해
자연스레 내미는
작은 손들이
서로를 향해 뻗어간다

나는 그 손끝에서
량심의 참모습을 배운다

(愛知조선중고급학교 신입교원)

《안녕하세요》

최 령 화

《고향의 봄》 종소리가 울리니
계단을, 복도를 뛰어가는 달음박질소리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크게 숨을 들이쉬고 교실문을 연다

《안녕하세요!》
속마음이 어떠하든
가장 환하게 해야 하는 인사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는
입언저리에 웃음이 피어나는것을
스스로 느낀다

《선생님, 나 어제...》
《선생님, 들어주세요!》
《선생님, 내가 먼저 말해요!》
앞을 다투어 저저마다 하는 말, 말, 말

선생이 하는 말을 따라하며
들까부는 1학년생
손을 들고 말을 하라고 해도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하고싶은 말 늘어놓는 저학년학생들
언제면 이들과 우리 말로만
말 나누게 될가

나날이 설레임이 커져만가는
아침마다
나는 《고향의 봄》 종소리에 맞춰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연다

《안녕하세요!》

(群馬조선초중급학교 신입교원)

첫 교단에서

류 혜 령

한밤이 지새도록
책상과 마주앉아도
언어지는것은 겨우 45 분
한 수업의 뒤편이고

소조활동시간에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춤을 추고 장고치는 내 손은
밤이 오면 하루빠짐없이
컴퓨터만 타닥타닥 타닥

이러는 깊은 밤에
갈마든 생각
더욱 꾸준히,
좀더 편하게 ...

하지만 교단에 서서
얼굴을 찌프리며 교과서를 읽고

서툴게 우리 글 적어가는 학생들을 보니
내 가슴 아프기만 했다

더 잘 배워주고싶은 마음
나날이 큰산같이 쌓여도
멋진 수업 못해주는
억울함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
힘들어도 래일로 넘기지는 말자
편해지려고는 아예 하지 말자

그들의 미래
푸르디푸르게 가꿔가는 이곳에서
있는 힘 다 쏟아부을수 있는
꽃내기의 바로 이런것도
먼 후날에 느껴볼
《보람》과 이어질가봐

(西東京조선제1초중급학교 신입교원)

고 향

채 덕 호

어린시절
아버지를 찾아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오셨다는 어머니
80년 세월은 흘러
죽기 전에 다시한번
고향모습 보고싶다고 찾아갔건만
옛모습 그 어디에도 없었다네
불행한 전쟁으로 인하여
피난생활도 하고
병들다가 피난지에서서
쫓겨난 일도 있었다는 어머니
갖은 고생 다하셨어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방패가 된 외할머니 그리시는지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리셨다
-엄마, 보고싶어...
아, 고향이란
어머니모습이었구나

꼬리곰탕

김 애 미

아름드리 냄비엔
소꼬리 무우 양파
끓인 물속에서
설렁설렁

아침 집을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오늘은 내 마음도
설렁설렁

내가 좋아한다고 해마다
생일이면 끓여주시는
우리 할매

더울 때일수록 약이 된다고
뼈까지 빨아먹어서
할매마음 오장육부에 스며들면
나는 한살 더 나이를 먹어요

《찰칵》

리 일 렬

이른봄의 따스한 해살이
창문너머 비쳐오는 무대에서
입원식 기념사진을 찍는데
두살반(2歲班) 유치반생
새근새근 잠을 자네

처음 보는 얼굴들 쑥스러워
아빠 엄마 손 꼭 쥐여잡고
축하의 환호와 꽃보라속을
아장아장 입장한것이 방금전인데

엄마의 품이 그리도 좋아선가
아늑하고 오붓한 우리 학교가
너희들을 포근히 안아주는
보금자리라서 그런가
잘도 자는구나

잠을 자다가도
받아안은 한아름의 선물이
그리도 기뻐선지
꿈결에도 방실 웃는구나

아빠 엄마도 빙긋
할배 할매도 싱긋
온 장내가 방긋
미래로 내려치는
웃음꽃 활짝 핀 이 순간을

《찰각!》

《전하고싶어》

김 명 혜

서른번째 무용발표모임
-선생님, 꼭 보러와주세요
찾아온 제자마음 고마워
한달음에 달려갔네

창작무용 《전하고싶어》
무대한복판에서 춤추는 주인공 리화
우아한 모습에 매혹되어
가슴이 쿵쿵 뛴뛰었네

황홀한 조명을 받아 눈부신
그는 곳곳한 엄마무용수
자식키우기 한창 바쁜 일 미루고
감정담아 서정적으로 춤추는구나

보면볼수록 내 감정이 솟구쳐오르는데
어쩐지 서른해전모습이 언뜻 스쳐가네
설맞이공연 인솔때 처음 만난 그

영광의 무대에 오른 감격으로 얼싸안은 일

무용소조의 중급시절 일들도 떠올라
자꾸만 눈가가 젖는데
자식키우는 고민도 웃음으로 뚫고
무대에 섰다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

무얼 전하고싶었느냐
안아온 행복, 겪어온 시련이 있었어도
가슴에 품은 꿈을 버리지 않으면
꼭 제자리에 돌아설수 있다는것이였구나

나도 전하고싶어
엄마모습은 자식들의 본보기
단념말고 앞을 향해 새출발하라고
대절찬 보내네

지수야

십 달 아

돌아보니 너 정말 많이 자랐구나
네가 자라나는 그 소중한 곁을 지킬수 있어서
이 선생은 매 순간 참 행복했단다

혼자만의 학급
단둘뿐인 교실
마음 한편으론 내 아들과 같았지만
한번도 그리 쉽게 대하지 않고
늘 귀한 담임학생이라 여기며 나날을 보냈단다

우리 교실에서 서로 마주보며 눈을 맞추던 수업시간
너와 주고받았던 재미난 이야기들
둘이서 가꾼 오이며 도마도 고추까지도 키워내던 기쁨
세상에서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기

일주일에 한번, 두번...
니시고베합동수업으로 향하던 그 길
계절이 바뀌는 동안 마흔번도 넘게 오갔던 그 길에서

날마다 밝아지고 밝아지던 너의 표정 너의 대답소리는
어느새 선생님의 큰 기쁨이 되어있었다

오늘 수료식날 의젓하게 서있는 네 모습
왜 이리 마음 한구석이 깊어지는지
너와 함께 지내며 나의 역할을 다 채워주었을가
밖에서 손잡고 더 많이 뛰여놀고
너에게 조금의 쓸쓸함도 남지 않도록
언제나 기쁨 넘치고 즐거웠던 시간 되었을가

하지만 지수야
선생님이 삼십년 넘게 수많은 학생을 만났지만
너처럼 내 마음에 깊이 깃든 아이는 없단다
너의 이름 가장 많이 부르고 아꼈단다

앞으로도 너의 나날을 늘 지켜보련다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네 이름 부르련다
《지수야》

친구가 생겼다

진 승 원

초급부 1 학년생 승철이가
공원에서 뽕을 차고 노는데
다가온 아끼라와 마모루
소학교 1 학년생

《어느 학교야?》

《조선학교야》

《조선학교?》

《조선말 아는가?》

《가르쳐줄가?》

아버지, 어머니, 소방차, 비행기
쏟아지는 우리 말에
평장하다 멋있다 눈이 둥굴

《교류는?》

《공룡》

《간다무는?》

《응…, 간담》

하하하, 셋이 웃는다

초급부 소학교 달라도

같은 1 학년생

승철이가 마음들었는가

함께 놀자 방글, 생글, 싱글

신나는 뿔차기놀이

승철 !

아끼라 !

마모루 !

4 월의 봄별아래

티없이 맑은 소리가

뿔을 타고 오고간다

친구 부르는 소리가

요즈음

김 성 순

사람감정을
끈질기게 건드리고
부추기는 대량정보

팽팽해진 신경은
지치다

제동 잃어 일방통행
그 동선에서
비웃고 조롱하며
혈뜯기 비일비재

돈버는 씨앗이
오로지 불안 공급만인줄 알아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 살리겠다
허공 향해 소리친다

한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걸터앉은 새 정보

다시 휘말리고
밀려나야만 하겠니

아십니까

리 방 세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기가 있다는것을
생활의 순간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웃음으로 이겨내고
덩실덩실 흥겨워지는 까닭을
귀를 기울여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들리지요 아름다운 선율이
그래요
한편의 시에 감동했을 때
늘 말하지 않나요
심금을 울린다고

치마저고리

서 정 인

《청상회》가 마련해준
검정색치마저고리
입학식날 모두가 입으니
너무 좋구려

스스로 쑥스러워하는
열두살
그리는 모습이
더 부시다

나 비

양금녀

나비가 난다
연보라색이런가
하늘색이런가
조그만 나비 서너마리
맑은 아침기운 좋아선가
내 발길우 감겨도는듯
팔랑팔랑 날개짓하며
깜찍하게도 노누나

나비가 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하고 깨끗한
흰나비 한마리
내 가는 길 반겨선가
나폴나폴 8자 그리며
즐겁게 재촉하누나

나비가 난다
검정색 날개에다

파랑빛 반짝 무늬
나를 어디로 이끌려나
하늘하늘 홀리며
우아하게도 나누나

나비야
다정한 나비야
너희는 난대도
하늘까지 오르라면
저기 저 빛
무지개와 어울려
꿈세계를 펼쳐주네

나비야
비를 굿고 나는 나비야
너희는 고운 날개 저어가며
말없이 가리켜주네
무지개는 저기 보인다고
나래를 펴라고
령롱한 희망따라
삶의 길을 가라고
춤추며 가라고

청춘이여 격류하라

심 복 실

일망무제 펼쳐진 온실에
오, 햇빛도 눈부시구나
열을 맞춰 준비한 수천의 호동들은
열병광장에 정렬한 정예대오런듯
푸른 젊음 억센 기상 그대로 도도하다

아버지의 뜨거운 바래움속에
출정의 자욱 내짚은 의기로운 발걸음들이
얼마나 거대한 자욱을 새겼는가
억척으로 다져쌓은 수백리 만년제방
아득히 펼쳐놓은 세상에 없는 온실도시
여기서 열혈맹장들의 피끓음을 내 보노라

햇빛이 있어 꽃이 피고 숲이 푸르거늘
청춘의 푸르름은 안겨주신것
하여도 값높이 불러주셨구나
청춘의 슬기와 열정만이 아닌
드놀지 않는 신념 뜨거운 애국을 묻어

세세년년 복락할 인민의 재부를 쌓아올린
우리의 젊은 일군들이라고

아버지의 리상은 청춘들의 리상
정녕 무엇인들 못이루어냈으랴
백두산기슭엔 산악같은 발전소언제를
우리 수도 평양엔 전위거리 대장관을
압록강반엔 세상으뜸 대농장도시를 펼치며
시대의 한복판을 살같이 꿰지르는
그 이름도 영예로운 영웅청년 !

그 품에서 애국을 배우고
그이 배짱과 담력을 그대로 닮아
가슴한껏 넓어진 이 나라 아들딸들
또 어떤 기적으로 세상을 놀래울것이나

신념으로 억세인 계승의 보무
이것으로 조국의 힘찬 나래침에
세찬 가속력을 더해주려니
이 가슴도 한없이 뒤설레인다
더 한껏 온 나라가 떠들썩하겠구나

푸르청청 내 조국이 더욱 젊어지겠구나

이렇듯 거창한 청춘의 바다
한계를 모르는 힘의 노도를
이 땅우에 분출시키셨나니
그 사랑과 믿음이 거대한 진원이 되어
청춘들의 발구름소리 지축을 뒤흔드는
열정넘친 내 나라는 청년강국 !

더 큰 힘 터뜨리라 피끓는 열정이여
격류하라 청춘이여 씩씩하게 용감하게 !

(조선거주)

예 !

리 방 세

단 한명의 입학식
선생님이 이름을 부른다
힘찬 목소리로
예 !
아무도 다치지 못하는
엄숙한 선언
우리모두의 대답소리

우리 학교를 찾아온 가족

김 성 철

봄빛도 따스한
군마(群馬)학교 입학식
유난히도 사람들의 이목을 끈 가족

아들을 조선학교에 보내고싶어
이와데(岩手)에서 군마로 옮겨온 가족
멀기도 하여라 540 키로

요즈음 세월에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라
동포들 저저마다 놀라와하는데

새 교복 새 교과서 새 책가방
1학년 아들녀석은
이 세상 보물을 다 받은듯 종시 싱글벙글

아이들이 웃으니
동포들도 부모들도 방긋방긋

급고 귀한 이 꽃밭 지켜갈 마음 새로와지는듯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쫓아 아아한

아까기산 저 봉우리처럼 억세게 자라다오

이 군마학교를

아니 멀리 이와떼동포사회도 빛내는

큰 사람이 되어다오—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입생 호명받은 아들녀석 대답소리

쩌렁쩌렁 울리네 울려퍼지네

《예 ! 》

《종소리》 제 15 호중에서

동 맥

정 화 수

분계선에 총포소리
몇은지 반세기
원시림 자욱히
가슴을 막아서더니

수풀도 철조망도
지뢰도 걷어치우고
입은 군복 서로 달라도
남북을 함께 이어 걷는다

헤여진 사람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다리다 웨치다 못해
떠난이도 많건만

대결의 길목
화해로 열고
서로 찾던 그 손을 맞잡고
이제 길을 잇는다

제발 이어보자
이어져다오
경의, 동해 철도선아
조국의 동맥, 겨레의 혈맥이여

내달려가보자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울며 불며 껴안아보자
피줄이 하나로 이어 뛰도록

(2003 년 여름)

107 호 후기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이 시대 우리 문학인들은 어떤 글을 써야 할가. 107 호에 수록된 2 편의 시에는 우리 학교 신입생의 《예!》하는 힘찬 대답소리가 담기였다. 깊은 여운을 남겨준 신입생꼬마의 대답소리.

바쁜 일정속에서 본지에 새로 글을 올린 신입교원 3 명의 글을 환영한다. 계속 분투해주기를 독자분들과 함께 바란다. (윤)

=====

詩誌 종 소 리

発行	《종소리》詩人会		
代表・編集	徐正人	校正	韓誠宇
e-mail	sousakukadai@yahoo.co.jp		
発行日	2026 年 7 月 10 日 (日本・東京)		

2026 년몫을 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지 《중소리》는 101 호이후 보시는것처럼 이렇게 web 발행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중소리》를 사랑해 주시고 시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연간 1,000 엔의 캄파모금에 찬동하여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시여 협력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송금해주실 口座는 아래와 같습니다.

ゆうちょ銀行 (記号) (番号)

10080 20334451 ソ チャンギョ

※ ゆうちょ銀行이 아닌 다른 金融機關을 통하여

송금해주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指定해주시시오

【店名】〇〇八 (読み ゼロゼロハチ) 【店番】008

【預金種目】普通預金 【口座番号】2033445

1 0 7 호